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마치며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직접 해외와 국내에서 직접 참가해주신 저명한 연구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를 끊임 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 기업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매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시장이 주목받고 있어, 현시점에서 우리 학회는 향후 프로바이오틱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Scientific Landscape on the Next Probiotics’라는 주제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날 이러한 연구업적들을 살펴보고 활용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이 참석하시어 열띤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학회와 글로벌 대표 기관인 IPA(International Probiotics Associations)가 프로바이오틱스의 글로벌 규제 조율을 위한 Committee를 양 기관에 구성하여 적극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미지역의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이 내년부터는 우리 학회에 공식으로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련의 일들은 한국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우리 학회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합심하여

프로바이오틱스가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인류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장 박성선